



# 휴.과.소.

휴가 동안 읽기 좋은  
과학책을  
소개합니다



힐링이 필요한 시간, 휴가철이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지만, 지적인 자극도 필요하다.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과학책이다. 과학 자체가 어려우니 과학책 또한 어렵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고르길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상황별로 추천할 만한 과학책을 꼽아봤다. 대부분 부담 없고 쉽게 읽힌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과학책을 집어 들자. 당신은 지금 과학책을 읽고 싶다.



『생각연구소』  
이동귀 지음 | 박영스토리 | 352쪽

**심란한 내 마음, 위로가 필요해...**  
**『생각연구소』**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 한 곡이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지상 최대 난제 ‘오늘 뭐 먹지?’와 마주한다. 상사의 잔소리만 잔뜩 들은 오후,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물건을 ‘핫김에’ 결제했다. 9시 넘게까지 야근하고 퇴근해 집에 오니 벌써 11시다. SNS를 보니 친구들은 소위 ‘핫플레이스’에서 저녁을 먹고 운동과 취미생활까지 즐겼다.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만 같다.

누구나 한번쯤 일상에서 겪어 본 상황들, 여기엔 모두 심리학이 숨어있다. 『생각연구소』는 나도 모르던 나의 심리를 파고들어 분석해주는 심리학 책이다.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는 ‘귀별레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돈을 쓰는 ‘핫김 비용’과 ‘카페인 우울증’<sup>1)</sup>까지 다양한 사례가 책에 담겼다.

이 책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읽을 필요도 없다. 목차에서 지금 내 심정에 맞는 주제를 골라 그때그때 읽고 치유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만 있는 것도 아니다. 책을 단순히 읽는 데서 한발 나아가 실제로 내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실천 지침’과 행동 변화를 다짐할 수 있는 ‘활동지’도 들어있다. 책을 읽다보면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양혜영**  
YTN science 과학전문기자  
hwe@ytn.co.kr

1) 카페인 우울증 : 카카오토티·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애플글자를 딴 신조어로, 타인의 SNS 게시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화려한 일상을 동경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 우울한 감정 상태를 겪는 현상 (생각연구소 p.182)



『과학 수다 3, 4권』  
이명현·김상욱·강양구 지음 | (주)사이언스북스  
404쪽(3권), 416쪽(4권)

과학을 향한 모든 궁금증...

『과학수다3, 4』

꼬리의 꼬리를 무는 질문 형식으로 다양한 과학 지식을 전하던 '과학 수다(2015년 출간)'가 4년 만에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왔다. 2017년~2018년 오디오클립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두 권의 책으로 엮은 『과학 수다 3: 대통령을 위한 뇌과학』과 『과학 수다 4: 과학, 누구나 넌?』이다.

『과학 수다』는 각기 다른 과학적 기초를 가진 세 명의 질문자가 이야기를 이끈다. 신경정치학과 통계물리학, 진화경제학 등 인문과 과학의 융합 분야부터 중력과 검출기나 극저온 전자현미경,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수다를 나눈다. 과학 수다의 미덕은 연구성과 말고 그 이면도 다룬다는 점이다. 여성 과학자로서의 어려움과 유리천장, 과학으로 본 페미니즘 등이 그것이다.

과학 수다라는 콘셉트에 맞게 글 곳곳에는 과학 개그도 숨어있다. 예를 들어 여성 과학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여성 연구자는 한 번 연구를 놓으면 다시 연구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자 '그게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지요.' (p173) 라고 맞받아친다. 물론 극히 일부만 웃을 수 있다. 일방적인 강연 혹은 수업 느낌이 아니라 '수다의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과학적 상상력을 펼치고 싶다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관내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도서관 내에서 마인드가 분실된 겁니다. 검색 결과가 없고, 반출된 흔적도 없습니다.”<sup>2)</sup> 사람의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마인드 업로딩’ 기술로, 죽은 이들이 도서관에 보관되는 시대, 소설 ‘관내분실’은 죽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도서관을 찾지만, 데이터 분실 사실을 전해 듣고 엄마의 유품을 찾아 나서는 딸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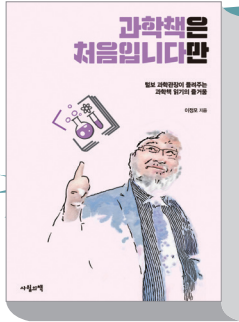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관내분실’과 가작을 받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포함한 총 7편의 SF 단편소설을 묶었다. 저자는 포스트텍에서 화학을 전공한 과학도로, 등단작을 통해 ‘한국 SF의 우아한 계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신인 작가라고 믿겨 지지 않을 정도로 미래 기술에 대한 설명은 사실적이고, 묘사는 아름답다. 여기에 여성 과학자와 장애인, 비혼모 등 사회 약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책을 읽는 동안은 아름다운 상상에 빠질 수 있고, 책을 덮으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어디쯤 있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2) 김초엽 작가의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중 ‘관내분실’ p.221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지음 | 허블 | 330쪽



『과학책은 처음입니다만』  
이정모 지음 | 사월의책 | 432쪽

**어떤 과학책을 읽어야 할까?...**  
**『과학책은 처음입니다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까지. 세 권의 과학책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다. 책의 유명세에 비해 읽기는 쉽지 않다. 나에게 맞는 과학책은 있긴 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이 쓴 「과학책은 처음입니다만」이다.

이 책은 저자가 2007년부터 써온 과학책 서평을 엄선해 한 권으로 모았다. 1부에서는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한 책을 소개한다. 생명과 진화, 우주, 양자역학, 인류사, 과학자 등 주제별로 10여 권의 책 서평이 이어진다.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책이 전하려는 과학 지식을 설명해준다. 어렵고 딱딱한 과학책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저자는 자신의 서평을 두고 ‘주례사 서평’이라고 부른다. 주례가 축복의 말로 신랑, 신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듯이 저자의 서평은 책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책이 사회에 잘 녹아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평 대부분이 칭찬이다. 그래도 내 취향에 맞는 책 하나 짚은 충분히 고를 수 있다. 참고로 필자는 읽고 싶은 과학책 10권을 만났다.

**아이와 함께 공룡의 세계로...**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

5~8살 아이들은 대부분 공룡을 좋아한다. 이른바 ‘공룡 홀릭기’다. 어려운 공룡 이름을 줄줄 외우고, 비슷해 보이는 공룡의 차이와 특징을 잘 찾아낸다. 그런데 혹시 지금 보는 공룡의 모습이 사실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공룡이 아직도 파충류라고 생각한다면, 설 새 없이 공룡 이야기만 쏟아내는 아이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다.

책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둘러싼 각종 오류를 정정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이끈다. 공룡의 몸집이 커진 이유, 공룡의 분류학적 논쟁 등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야기가 이어진다. 특히, 공룡의 깃털 기능과 색, 공룡의 성생활 등 다른 공룡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도 흥미롭다. 저자는 공룡에 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한다. 지금의 공룡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정교한 ‘모델링’일 뿐이다. 이 책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가장 최신의 연구를 반영했다. 게다가 웹툰 형식이라 쉽게 읽히고, 공룡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아이들이 왜 공룡에 빠져들고, 공룡을 통해 과학자를 꿈꾸는지 알 수 있다. 🐲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  
김도윤 지음 | 한빛비즈 | 308쪽